

'인구문제' 도민과 공유하며 대책 찾는다

젊은층 가족·결혼 인식 개선용
도, 홍보영상 제작 학교 등 배포
저출산 극복 시책 홍보 본격화

전남도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민·관이 함께 한 저출생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20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정맞춤인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남도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미취학아동과 청소년의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교육 영상을 제작, 배포한다.
인구교육 홍보영상은 수요자 특성에 맞게 미취학아동용과 청소년용 등 2종으로 제작됐다. 미취학아동용 영상(1분 45초 분량)은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과 동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청소년용 영상(5분 30초 분량)은 같은 또래 청소년들이 출연해 인구문제를 보다 편안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인구문제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공감하며 결혼, 출산 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해당 영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를 비롯 초·중·고 교육기관에 배포 교육과제로 활용되며, 유튜브 '전남

채널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10월중 배포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와 현장 대면방식으로 추진하던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을 코로나 19 시대에 대응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키로 했다.
온라인 캠페인은 ▲전문가 강의 청취 후 결혼·출산에 대한 지역 대학생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온택트 토크&퀴즈쇼' ▲아빠의 육아문화 확산 동참을 위한 '100인의 아빠단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 카페 인구홍보영상 '맛글이벤트' 등으로 꾸려져 11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아울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책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 라디오와 신문, 버스 광고판 등을 활용해 공공산

후조리원, 한방 난임치료 및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등 주요 지원시책에 대한 홍보를 본격화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의 생존을 위해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가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부부(만 45세 이하) 결혼 축하금' 200만원 지원 ▲'셋째아 이상'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연 2회)' ▲'신생아 양육비 확대'(1인당 30만 원~50만 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청년 스마트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 워크숍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목포·화순·여수 각각 50명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청년 스마트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을 위해 지난 14일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청년스마트 유통활동가 이 러닝(e-learning) 및 직무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진흥원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목포, 화순, 여수 등에서 각각 50명씩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전략 기획실무자, 마케팅데이터분석사, 영업실무관리자, 온라인마케터 등의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실습, 최종 평가 등을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진흥원은 청년스마트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의 직무연계 자격증 취득을

돕고 조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등 개인 역량 강화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역농협 공채를 대비해 NCS 과정을 지난달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해왔으며, 도내 20개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창업 기초실무와 마케팅 및 영업 실무 전문가 과정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 워크숍을 병행해왔다.
청년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유통활동가 200여명을 도내 20개 지자체 내 농·수·축협 및 로컬푸드에 배치해 현장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있다. 지난해 3명의 유통활동가가 도내 단위농협에 정규직 입사한 데 이어 올해에도 3명이 북산농협에 정규직 합격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담양 유명 맛집들, 전남도립대에 장학금

전남도립대가 소재한 담양의 유명 맛집들이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잇따라 기탁했다.
전남도립대는 20일 "지난 14일 김갑례 숯김식당 대표와 박영아 담양애꽃 대표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써달라며 각각 1000만원과 200만원의 인재양성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에도 2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김 대표와 박 대표는 "앞으로 지역을 이

끌어갈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에 정진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기탁 이유를 설명했다.
전남도립대는 전남도가 설립해 운영중인 호남 유일의 국립대학으로, 그동안 정부 대학평가 우수대학 9관왕을 차지해 '취업교육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올해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지역맞춤형 인재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국화 향기로 코로나 시름 달래볼까

전남도 완도수목원
25일까지 산책주간 운영

전남도 완도수목원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재충전 할 수 있도록 17일부터 25일까지 '2020년 완도수목원 가을산책주간'을 운영한다. <사진> 이 기간에 완도수목원을 방문하면 늘푸른 난대림과 각양각색의 국화가 어우러진 특색 있는 수목원의 가을을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특히 가을에 개화하는 털머위와 금목서, 구골목서 등 같은 난대수종 꽃들과 더불어 다채로운 색깔의 국화꽃을 활용한 국화 꽃길, 이색 포토존이 조성돼 방문객들로 하여금 가을향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림전시관 1층에 한국무궁화연합회 작가들이 그린 나라꽃 무궁화 작품을 비롯 완도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회화 작품도 전시해남도 문화예술의 깊이와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한편, 완도수목원은 전남도가 운영중인 공립수목원으로 완도의 청정바다와 푸른 난대림이 어우러진 2033ha에 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난대림 자생지다. 붉가시나무, 구실잣나무 등 770종의 난대성 자생식물이 분포돼 있어 사시사철 푸르른 숲을 자랑하고 있으며, 아열대온실과 수변데크, 난대숲길, 31개의 전문소실 등이 갖춰져 관람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소방, 주요 등산로 긴급구조 대책 추진

31일까지 시설물 정비·구조훈련

전남소방본부는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19개 주요 등산로와 산악사고 빈발지역, 위험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고려해 산악위험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정비와 산악사고 인명구조훈련 등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종료되면, 주요 등산로에 119구조·구급대를 비롯 의용소방대, 시민산악구조봉사대를 배치해 등산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등산목 안전지킴이'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조자 발생 시 신속한 위치정보 확인을 위해 119현장지원 모바일시스템을 활용하고, 소방헬기와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구조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항공대와 특수구조대, 소방서 간 동시 대응체계를 강화해 소방헬기, 특수구조대 드론, 산악구조대 구조견, 소방서 구조대가 동시 대응·수색지원 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최근 4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1593건으로 해마다 400건 가량 발생하고 있다. 사고원인은 조난사고가 282건(23.3%)으로 가장 많고 실족·추락 사고 186건(15.4%), 개인질병 118건(9.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전남오피스창업' 온라인 멘토링 지원

창업자·예비창업자 대상

전남도가 도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 종합플랫폼 '전남오피스창업'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 멘토링 지원에 나섰다.
'전남오피스창업'은 전남지역 32개 창업지원기관마다 분산된 창업관련 정보를 하나로 연결한 창업지원 종합플랫폼이다. 창업자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창업인프라와 창업교육, 사업화, 자금·판로 지원 등 창업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와 1대1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화상 멘토링은 전남에서 창업을 희망한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남오피스창업 누리집(instartup.co.kr)에 회원등록 후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세무·회계, 제품분석, 투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50명의 멘토를 통해 온라인 화상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전남오피스창업'은 지금까지 예비창업자 1420명에게 창업정보 제공 및 멘토링 1647회를 지원해 신규창업 126개사를 비롯 사업화지원 연계 219건(47억원)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